

## 原電 PA와 教師

서 성 진  
〈신원중학교 교사〉

중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이번 기회에 원자력발전소를 견학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 준 원자력산업회의 측에 감사드리며 조심스럽게 원자력산업(원자력발전)과 PA에 대하여 교육현장에서 있는 사람으로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에너지사정이 현재로서는 원자력 발전을 외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저 자신도 “원자력”하면 곧 “핵폭탄”을 연상하게 되어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1979년 TMI 사고나 1986년 발생했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아무리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강변한다 해도 공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전남지역 대학의 총·학장들이 영광 원자력 발전소 3, 4호기 건설을 반대하는 성명이 발표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흐름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반핵주의자들의 목소리 또한 거세어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사정을 상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1987년과 1988년 2년 연속

우리나라 총 발전량의 50% 이상이 원자력 발전에 의한 것임을 신문지상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내가 쓰고 있는 전기의 반 이상이 원자력에 의해 생산된 것이고, 우리의 산업 현장에서 쓰고 있는 반 이상의 전기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누가 감히 원자력 발전소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반핵주의자들의 주장에도 대안이 없다는 맹점으로 해서 호소력이 없음은 사실입니다. 화석 연료를 이용한 발전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흔히 거론되고 있는 CO<sub>2</sub>의 온실 효과 만으로도 충분히 원자력 발전의 필연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 하는 첫째는 바로 이런 두 가지, 공포와 필연성 사이에 빠져 있는 아이러니입니다. 발전과 생존을 위해 필연적인 원자력 산업이 오히려 발전과 생존을 해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거둘 수 없으니 답답한 일입니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순수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교사로서 스스로의 신념을 정립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산업으로서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가르



▲ 고리원자력발전소 1, 2, 3, 4호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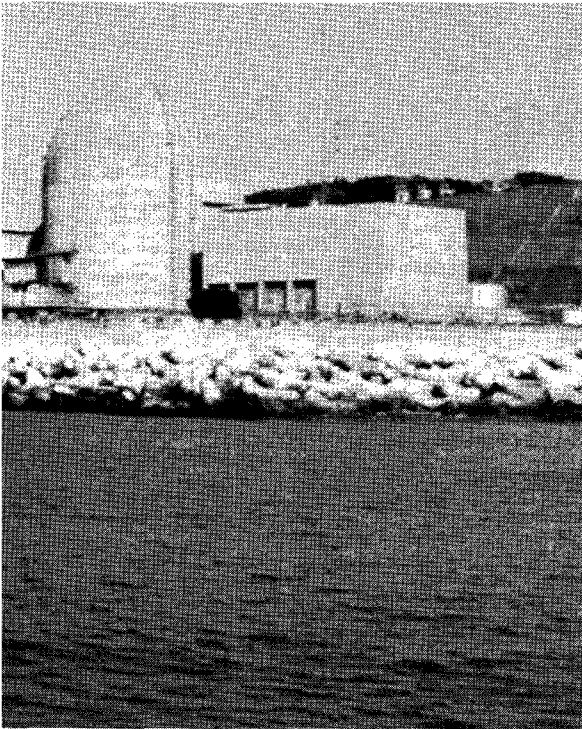
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외국에서 보았던 원자력발전소의 사고가 우리나라에서도 만약 발생할 수 있다면 환경보호의 측면에서 경계해야 할 일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날 지나친 발전 지향적인 자세가 뒷날 감당할 수 없는 환경오염문제를 초래했던 일은 다른 산업 분야에서 얼마든지 보아왔던 까닭에 원자력산업 또는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입장에 처해 있는 저는 오늘 이러한 행사를 통해 원자력산업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확실한 지식과 신념을 갖고 싶습니다. 과연 우려하지 않아도 될만큼 안전한 것인지, 순진한 학생들에게 원자력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심어 주어도 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신중하게 원자력산업을 소개할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둘째로는, 교사들에 대한 홍보활동 또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

다. 자칫 잘못하면 요즘 한창 갈등을 빚고 있는 것처럼, 언젠가는 원자력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교사들과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교사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굽히려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는 이미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 벌써 그 기미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초·중등 교사들에 대한 계획적인 연수가 원자력산업회의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대한 계획적인 연수가 원자력산업회의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기 전에 반체제 또는 의식화 단체들에 의해 다루어져 이들에 의해 부정적 시각이 교사들을 오염시키게 되면 이를 시정하기는 더 많은 노력과 갈등을 오랜 기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원자력산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단시일 내에 저변으로 부터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며, 교육의 효과 또한 짧은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되고 착실히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 학교에서 부터 원자력산업에 대한 이해와 발전 방향을 교육하고 동시에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학적 제반원리를 접하는 중등학교에서의 체계적 학습은 평생동안 변하지 않는 이해와 태도를 견지하는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중등학교에서의 PA활동이 중요할진대 “원자력발전소 교사 견학 〇〇 명”과 같은 수치 높음으로 실적을 과대평가한다면 그것은 뒷날 커다란 오류를 범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원자력산업에 대한 지식, 태도, 적용방법 등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과정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환경문제에 대한 내용이 초·중등학교 교과서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테마가 되었듯이 적은 양에서 부터라도 원자력산업이 교과서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더우기

인문·사회 교과를 통하여 당위성 만을 강변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연과학 교과를 통하여 원리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자력산업 발전을 추진하는 측의 일방적 강요된 지식이 아니라 정직하고 윤리성에 입각한 학문적 내용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연수가 필요합니다. 원자력산업회의나 한전 등의 기관이 여유있는 경제력과 풍부한 지식, 경험 등을 바탕으로 연수의 일익을 담당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현재로서도 서울중등과학교육연구회 등을 통하여 해외연수, 강연회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교사들이(일반국민들도 같은 것임)원자력발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유아적 공포심이나 산업 폐기물의 안전성 등에 아직도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자력산업회의나 한전 등이 주도하는 홍보활동이 필요하며, 그 구체적 방법에서는 교육기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실천해 나가는데 있어서 주도하는 기관의 일방적 생각을 주입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교육 전문가들과 보다 폭넓은 협의가 필요하며 투자도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원자력에너지를 과거의 화석연료에 의한 에너지와 비교함과 동시에 미래의 에너지로서 수소에너지 등도 거론하여 오늘날 원자력에너지가 더욱 안전한 미래의 에너지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원자력산업에서 얻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원자력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미래의 에너지 개발에 투자하고 이를 홍보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입니다.